

야생조류 보호호 재활용업체에서 나섰다

사무소 후원: (사)한국환경보존협회



계곡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행사를 축하이라도 해주려는 듯 완연한 봄 날씨다. 긴 겨울 동안의 침묵을 깨고 계룡산은 새 소리와 계곡의 물소리로 새 생명의 활력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지난 3월 3일 전국 5대 명산의 하나인 계룡산 국립공원 내 조각 공원에서는 새들의 서식처를 만들어 주기 위한 '야생조류 보호, 새집 달기 캠페인' 이 거행됐다.

협회가 후원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 조건이 악화되어 언제부터인가 야생동물들이 우리의 걸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숲을 푸르게 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행사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이라도 하듯 KBS, MBC, TJB, YTN 등 방송사와 지역신문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 진행되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으며 보도를 통하여 환경보호와 자연사랑의 중요성을 계몽,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에 조류의 서식처로 사용된 새집은 가전제품의 포장 완충재, 농수산물 포장상자로 널리 쓰이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기존의 나무로 만든 새집이나 콘크리트와 톱밥을 섞어 만든 새집에 비해 보온성과 경량성이 우수하여 조류의 서식 확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임이 그동안 협회가 광릉, 북한산 등지에 시험 설치하여 본 결과 밝혀졌다.

버리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조류의 서식처인 새집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계룡산국립공원 새집달기 캠페인

일시: 2000. 3. 3 (금) 10:30 ~ 13:30

장소: 동해서업구 조각공원 주최: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관리사무소 후원: (사)한국방포스티렌재활협회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자연 생태가 파괴되는 시점에서 폐자원의 재활용, 환경보호, 자연사랑이라는 금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학생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및 지역 각급 기관장, 협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지정 희귀 보호조류 방사와 새집 달기 행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각급 기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말뚝가리 방사 순간에는 행사에 참가한 지역 주민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며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새를 축복해 주었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조류박사인 채희영 박사의 지도 아래 행사 참가자 전원이 지정된 나무 위에 스티로 폴을 재활용하여 만든 새집 200개를 달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 조심조심 새집을 나무에 묶어 달면서 내가 새 집에 새가 날아와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린이다운 소박한 꿈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단순 일회용 행사에 그치지보다 지속적인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새집에 대해 실제 야생 조류들이 서식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 조사와 함께 각 새집과 서식 조류의 연관 등 새집 이용 조류의 번식 생태 연구와 새집을 설치한 지역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유해 곤충 방지 효과도 측정 분석할 계획이다. ☎